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20원 상승한 1,118.1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전일대비 1.20원 상승한 1,118.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오른 1,117.50원에 개장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4%대로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환율은 오전중 1,120원에 근접하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였다. 오후에는 위안화에 연동해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전일대비 1.20원 상승한 1,118.1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24.1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7.50	1119.90	1116.50	1118.10	1118.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3.74	1025.46	1018.40	1018.9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61.73	1365.77	1360.77	1363.3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3	-0.6	-1.04	-1.71	
	결제환율(수입)	0.02	0.33	0.49	0.95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국채금리 상승과 수입 결제 우위에... 1,11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8.10원) 대비 0.40원 오른 1,118.4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1.6%대로 상승하여 달러화 강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는 40.6만 명으로 예상(42.5만 명)을 하회하여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110원 레벨이 바닥으로 인식되어 역

송금 수요와 결제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이번 주 화요일 순매수로 마감했던 국내증시 외국인 투자심리는 재차 순매도로 전환하여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월말 네고물량 유입과 위안화 강세 분위기에 환율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을 최대한 폭 상향 조정한 가운데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5.33 ~ 112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447.6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40원 ↑
	■ 美 다우지수 : 34464.64, +141.59p(+0.4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2.3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49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